

국어 교육과 외국 문학의 수용

한 기 상

1. 들어가면서

‘고전 읽기 운동’이 서울대를 시발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잔악한 인명 살상이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는 오늘의 세대를 개탄하는 시점에서 금번 우리 국어교육연구소에서 기획되고 있는 문학 교육의 재검토는 실종된 인성 교육의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기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대학생이나 일반인의 독서 체계 연구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우선 초·중·고등학생들의 실질적인 독서 및 교양(bildung)을 위한 독서 지침의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또 여태까지 초·중·고등 교과서에 게재된 문학 내용의 선정 기준이 한 번도 제대로 정립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더욱 바람직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목전에 두고, 우리 문학의 전문가도 아닌 필자가 독서 내용의 지침을 위한 이론을 전개한다는 것은 실로 능력 밖의 일이다. 따라서 필자는 단지 15년 가까운 세월 동안의 독문학 강의를 통해 늘 의문시해 왔던 몇 가지 생각들을 정리함으로써 다 함께 우리 문학 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각성하여 참된 미래 지향적 문학 교육에 일조하려는 뜻으로 초·중·고등학교의 문학 교육 중에서 외국 문학, 그 중에

서도 특히 독일 문학을 중심으로 느낀 바를 그대로 기술하려고 한다.

평소에 늘 모든 외국 문학 연구(특히 번역 연구)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가 우리 문화와 국문학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여겨온-이는 가끔 국익과 관련하여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이 훨씬 더 중요시 여겨기지도 하지만-독문학을 업으로 삼고 있는 필자가 미래의 초·중·고등학교 문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유일한 이 기회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의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 분석이었다.

2. 교과서 内の 외국 문학 분석

국민학교 국어 교과서에는 외국 문학이 전혀 게재되어 있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필자의 짐작은 속단이었다. 그러나 5학년까지는 축소된 위인 전기(예를 들어 “지금도 살아서 온 인류의 가슴을 훈훈하게 해 주는” 사랑의 천사 ‘나이팅게일’이 4학년 1학기에 소개되어 있다.) 몇 편이 전부이고 6학년 1학기 「읽기」 제7과(pp. 65-76) 「어린 왕자」가 실려 있다(여기에도 외국 문학은 아니지만 pp. 137-146에 ‘슈바이처’ 전기가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다).

“「어린 왕자」를 읽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를 나눌 가치가 없다”는 식의 극단적인 주장을 할 정도로 이미 우리 나라는 물론 전세계에서 널리 애독되고 있는 이 작품 소개의 서두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물의 성격이나 마음을 짐작해 가며” 읽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아름다운 어린 왕자의 모습을 비롯하여 시종일관 의미 있는 그림들이 군데군데 아기자기하게 채색되어 있어 일견 동화 속의 그림처럼 쉽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깊이 들여다 보면 그 모든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될 수 있는 작품은 아닌 것 같다.

예를 들어 : 시작부터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의 ‘달혀진 그림’과 ‘열려진 그림’의 비유라든지,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등등의 내

용은 이 생물의 외적인 모습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그야말로 아름답고 신기하기만 한 ‘메르헨’(동화)의 세계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어린 왕자」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물론 어린이들에게도 유익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작품은 원작자인 생뵉쥐페리(Saint-Exupery) 스스로가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오히려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하는 편이 훨씬 더 타당할 것이다.

6학년 2학기 ‘읽기’에는 외국 문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단한 ‘타고르’ 전기 한 편(pp. 107-116)과 「크리스마스 송가」(pp. 118-128)가 드라마 형식으로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크리스마스 송가」는 오래 전부터 어린이들이 6학년이 되기도 전에 이미 ‘세계 위인 전기’라든지 만화 또는 만화 영화 등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우리 기성 세대들도 국민학교 시절에 학예회를 위한 단막극으로 무대 위에 자주 올랐던 기억이 있으며, 「크리스마스 송가」보다는 오히려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로 더 잘 알려진 作品이다.

중학교에서는 아득한 먼 옛날과 마찬가지로 1학기와 2기로 나뉘어 두 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학교가 다 그런지는 모르지만 서울의 D고교의 경우 (1) 국어(상), (하), (2) 문학, (3) 문법, (4) 작문으로 나뉘어진 5권의 교재를 1학년 입학시에 모두 나누어 받고 국어(상)은 1학년에서, 그리고 (하)는 2, 3학년에서 배우며 문학과 문법은 받아만 두고 2, 3학년에 가서 사용하고, 작문은 1, 2, 3학년에 걸쳐 배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신기한 것은 이 많은 책들의 내용 중에 외국 문학과 직접 연관된 작품이 한 편도 게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국제화 시대란 구호가 무색하게-물론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지만-실망감으로 의욕 상실된 필자의 마음을 달래 준 것은 중학교 교과서였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는 pp. 103-112에 빌라드(원저자의 영문 소개나 년도 소개도 일체 없이 유명 옮김이라고만 되어 있음)의 ‘이

해의 선물'과 pp. 198-206에 루쯔칭(朱自淸)(1898-1948, 중국 저장 사람, 수필자)의 '아버지의 뒷모습'(허세욱 옮김) 이렇게 딱 2 편의 외국 문학이 소개되어 있다.

전자인 '이해의 선물'은 6, 7 세 적의 어린 시절을 어른이 된 후 회상하는 내용으로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어느 가게 주인의 아름다움 마음씨를 본받아 훗날 스스로도 실행에 옮기는 주인공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과연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중 1년생이 작가가 의도하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인지는 심사숙고해 볼 만한 일이다. 그리고 후자 '아버지의 뒷모습'은 비교적 자세히 소개를 하고는 있으나 내용상 20 살이나 된, 이미 성인이 된 아들의 연로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효심 어린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 이 또한 우리의 중학교 1학년에게는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1학년 2학기에는 pp. 69-80, 그리고 pp. 204-212에 걸쳐 역시 두 편의 외국 문학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전자는 필자의 눈을 빛나게 한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1877-1962)의 단편소설(Novelle 노벨레) 「나비」(Schmetterlinge)이며, 후자는 폴란드 태생의 여류 과학자이며 훗날 라듐을 발견한 퀴리 부인(Marja Sklodowska)(1867-1934)이 쓴 「폴란드의 소녀」이다.

「폴란드의 소녀」는 우리의 암울했던 옛 한일 역사 관계를 회상케 하는 작품으로서 폴란드와 러시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착실한 여학생이 지배 민족의 장교의 어려운 질문 시간을 지혜롭게 넘기는 소녀의 눈물겨운 내면 세계 그리고 그것을 이심전심으로 깊이 이해하는 선생님의 모습에서 폴란드인들의 민족 정서를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그러나 세계사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 이 작품의 내용이 과연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그것도 88년 올림픽을 거치면서 경제적 도약과 통일을 목전에 둔, 그리고 환경문제가 금세기 최고의 위협으로 둔갑한 오늘의 시점에 와 있는 우리의 14 살짜리 청소년에게 적합한 내용인지는 재고해 봐야 할 문제이다. 전자인 「나비」(Schmetterlinge)는

여타 작품에 비해 중학교 1학년의 연령(실제로 독일에서도 김나지움 5학년에서 배운다)에 비교적 가까운 나이에 해당한다. 이미 성인이 된 주인공이 어릴 적(8, 9 세 때)의 나비 채집을 둘러싼 친구와의 우정과 갈등을 심리적 차원에서 회상의 형태로 서술한 이 작품은 헤세의 주 모티브인 순진무구 또는 '어린이다움'(Kindheit)을 잘 묘사하고 있다. 스스로도 나비를 무척 사랑하는 주인공이 친구가 채집한 희귀한 나비가 탐이 나 몰래 훔치려다 나비는 물론 동시에 자신의 양심도 망치고 말지만 어머니의 설득으로 모든 것을 친구에게 고백한다. 그러나 담담한 친구의 태도에서 이미 한 번 엇지른 일은 다시 되돌려질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 터득을 통해 청소년의 '정신적인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는 훌륭한 작품이다. 게다가 짐작이며, 푸른 나비, 갈색 비로드 날개, 빛나는 커다란 무늬 등등의 화려한 형형색색의 섬세하고도 아름다운 묘사는 감수성이 예민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을 감동케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중1 교과서에 게재된 것은 그야말로 작품과는 전혀 무관하게 보이는 듯 희미하게 인쇄된 나비 몇 마리의 사진 뿐이다.

중학교에서 이 작품이 실리게 된다면 이어서 고등학교에서는 우리의 대입 현황과 연관된 헤세의 또 하나의 청소년을 위한 명작 「수레바퀴 밑에서」를 권장하고 싶다(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2학년 1학기에는 pp. 237-257에 실려(이것도 쉼표로 기록해야 옳은 발음이다)의 빌헬름 텔(Wilhelm Tell)과 호손(Hawthorne, Nathaniel)(1804-1864)의 「큰바위 얼굴」(피천득 옮김) 두 편이 실려 있다.

후자인 「큰바위 얼굴」은 필자도 아주 어렸을 적인 1960년 초에 배운 적이 있다.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아주 오래된 이 작품의 문학성은 어느 정도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이 운운되는 오늘날의 한국 중학 2학년에게 잘 부합할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너무나 '고전적'(klassisch)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전자인 「빌헬름 텔」(강두식 역)은 피테와 더불어 독일 문학을 세

계 문학으로 끌어올린 세계적인 문호 프리드리히 쉴러(Friedrich Schiller)의 유명한 드라마로서 이미 ‘사과쏘기’ 전설의 내용을 통해 잘 알려진 作品이다. 이 드라마의 원본은 보통 번역본 크기의 책 100여 페이지의 분량에 해당하는 부피이지만 교과서에는 상당히 축약시켜 게재하고 있다. 필자의 견해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우선 이 드라마의 줄거리와 내용 설명을 간단하게 첨부하면 다음과 같다:

이 드라마는 오스트리아의 포악한 압제적 통치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을 꾀하는 스위스 발트슈테텐의 3 주(州) 즉, 우-리(Uri), 슈비츠(Schwyz) 그리고 운터발덴(Unterwalden)의 주민들과 주인공 텔(Tell)의 긴장 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자유를 위한 투쟁의 이야기다. 단적으로 표현해서 텔은 스위스인의 자유로운 민족성과 민족 해방이라는 일차적 목표-투쟁-만을 위한 인물이 아니라 쉴러가 뜻하는 “美的 人間의 實現(Realisation des ästhetischen Menschen)”이다. 다시 말해서, 텔은 1) 완전무결한 실존의 자유와 2) 죄와 고통이 가득한 현실 세계의 조화를 위해 투쟁하는 이상적 전형(Ideal typus)이다. 따라서, 텔의 내면 세계는 윤리적인 문제를 초월한 실존적인 자유의 문제로 고심한다.

“Es geht in Tell nicht nur um das moralische problem sondern um das problem der existentiellen Freiheit”

(텔에게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실존적인 ‘자유 의 문제’이다.)

내용의 배경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발트슈테텐 지역은 곧 로마 시대 이래 다양한 민족들이 유입해 들어와 정착한 곳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스위스인들이었고, 이들은 본국에서 큰 흉년을 맞는 바람에 기아로 고생하다가 마침내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이동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남쪽으로 이주하던 도중, 폭풍우를 만나게 되

었으며 피신처를 알프스 산중의 어느 호수 근방으로 택하게 되었다. 산과 숲, 호수, 하천 등 주위의 풍경이 그들의 고향과 비슷한 점이 그 곳을 그들의 정착지로 결정케 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 지역이 바로 스위스에서 가장 오랜 발트슈테텐의 3 주인 우-리, 슈비츠, 운터발덴이다.

이렇게 형성된 주민들의 군주는 오직 신성 로마제국의 황제뿐이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지배자의 통치도 받아 본 적이 없었으며 나아가서 황제로부터는 그들의 정착지를 자유인의 거주 지역으로 승인 받았을 뿐 아니라 많은 특혜와 자유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일은 그들이 스스로가 자치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며 오로지 형사상의 몇몇 사건들만이 예외로 황제의 대리자가 그곳으로 파견되어 재판을 주관했을 뿐이다. 비록 한때는 황제에 대한 충성을 거부한 적도 있었으나 대개는 자유롭게 평온한 가운데 생활을 영위해 나갔다.

그러나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알베르트 공작은 3 주를 자기의 왕가에 직속시키려는 음모를 꾸몄고 이에 대항해서 자유 지역 주민들은 대표자들을 파견하여 공작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항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공작은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한편 총독관을 스위스로 파견했다. 총독관의 임무는 공식적으로는 독일 제국의 대행자로 행사토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순전히 합스부르크 일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에 치우쳐 있었다. 즉, 3 주의 제국에 대한 독립적인 관계를 점차 합스부르크 일가에 예속된 사적인 신하의 지위로 전락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

마침내 알베르트 공작은 1304년 자신의 음모를 수행하도록 지령을 받은 두 총독 즉, 게슬러(Gessler)와 라덴부르크(Ladenburg)를 임지로 보낸다. 게슬러는 우-리와 슈비츠를 지배하고 라덴부르크는 운터발덴을 통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게슬러는 슈비츠의 쿨스나히트(Küßnacht)와 우-리의 알트도르프(Altdorf)에 성을 건축케 하였으며 라덴부르크는 자르넨(Sarnen)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대리인 볼펜쉬쎄(Wolfenschießen)을 로스베르크(Roßberg)로 파견근무케 했다. 이 세 총독관은 하나같이 냉혹하고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 작품에서 실러는 주인공 텔을 선두로 스위스의 자유민들이 이들 세 총독관의 폭력에 맞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며 오스트리아의 압제에 대항하고 있는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실러는 자신의 최고개념(Höchstbegriff)인 '자유(Freiheit)'를 위한 인간적 투쟁을 이 작품에서 미적(美的)인 차원으로 승화시켜 나간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드라마의 내용상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 실기에는 수준이 상당히 높은 작품이므로 차라리 고등학교 고학년에 더 적합치 않을까 생각된다.

더욱이 독일에서도 실러 강의는 주로 그의 철학적 저서들(『소박 문학과 감상 문학에 관해서』<Über naive und sentimentalische Dichtung>,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해서』<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등등)과 함께 Observeinar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하더라도 (필자도 작년에 이 작품을 번역 출간하여 해설을 첨가한 경험이 있다) 제대로 이해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3학년 1학기에는 외국 문학 소개가 전혀 없으며 2학기에만 pp. 31-43에 프랑스 문학 한 편과 pp. 157-174에 영국 문학 한 편이 실려 있다.

도데(이름도 원어 표시 및 생애 연도가 전혀 없다.)의 「별」(김봉구 옮김)이라고만 소개되어 있는 전자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익히 알고 있는 수십 년 된 단골 작품이다. “그때 내 나이 스무 살이었다.”라고 회상하는 이 작품에는 성스럽고 순결한 두 젊은 남녀, 스테파네트 아가씨와 목동의 모닥불 정경이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된 그야말로 순결무구 그대로의 ‘한편의 시’이다.

그리고 후자인 오 헨리의 「마지막 한 잎」(이진섭 각색)(우리가 배울 때는 「마지막 잎새」였다고 기억된다.) 또한 우리의 귀에 익은 명작이다. 그러나 이 두 명작을 다시 한번 감상하면서 중3 교과서(이젠 모두 14, 5세이다)에 실려야 되는지? 한창 발달하고도 창조성과 민감성이 미래 희망적이어야 할 나이에 죽음을 앞둔 소녀와 주정뱅이 화가의 마지막 작품

인 「마지막 한 잎」이 그렇게도 의미가 있다면 이 시기의 학생들에게 「라트라비아타」 오페라 감상은 어떨까? 적령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해당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마지막 한 잎」을 감상케 하는 텍스트 구성에서 흑백으로 된 잎이 무성한 담쟁이 넝쿨 사진 한 장을 게재한 몰상식은 원작자의 의도와 작품의 질을 수렁으로 떨어지게 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이렇듯 무수한 세월이 흘렀는데도 유독 이 두 작품만이 계속 만수무강해야 할 무슨 문학적 근거가 없다면 그리고 다른 훌륭한 작품들이 모두 금서에 속하지 않는다면 다른 작품의 선택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개요에서 알 수 있듯이 그나마 중학교에 치중되어 있는 몇 편의 외국 문학 소개가 아무런 기준(국가나 학생들의 연령에 관계없이)도 또 적절한 객관적 해설(kritische Ausgabe)도 없이 명작 순례처럼 나열되어 있다.

법이나 원칙은 사실상 많을수록 잘 안 지켜지는 것이지만 교육이란 것이 있는 그대로를 이끌어 낸다는 뜻의 Erziehung(er-ziehen)이며, 문학(교육)은 더구나 뜯구름 잡는 일처럼 여겨져서, 비록 허공에 선을 긋듯 없는 기준을 애써 마련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 몇 가지 문학 교육의 지침을 도마 위에 올려 놓아야 할 것 같다. 어른들도 독서를 기피하는 현실(전자 오락, TV, 만화, 비디오 등등 흥미진진한 프로그램들이 수두룩하고 삶의 형식은 점점 더 복잡하다.)이지만 그럴수록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훌륭한 문학 작품과 그 선정 기준을 숙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야만 훗날 학생들이 자신의 정서와 적성에 맞는 직업의 소명감을 심분 발휘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지 않는 님을 애타게 그리는 것이 시인의 마음이듯, 문학의 본질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M. Proust :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헤매거나 오지도 않는 '고도를 기다리며'(S. Beckett : Warten auf Godo), 존재하지도 않는 '초인'(F. Nietzsche : 'Übermensch' in : Also sprach

Zarathustra)을 염원하는 것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차피 인생 자체의 본질이 나그네 길이요, '타타타'의 한 모습임을 쉽게 깨닫지는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지만, 그래도 후세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삶의 의미를 깊게 해 준다.

필자가 독일 및 스웨덴의 문학(특히 아동 문학)작품을 번역할 때마다 서두에 강조하는 문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허공에 선을 긋듯 문학작품도 언제나 만족스럽게, 재미있는 것만으로 충족되어 있지는 않다.

하나의 작품이 한 인간의 생로병사, 희로애락 등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거쳐 탄생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결코 읽기에 즐거움만을 줄 수는 없는 것이요 또 그래서도 안될 것이다. 훌륭한 작품일수록 그 내용 속에는 인생 자체처럼 약간은 지루하더라도 깊은 인생 철학이 담겨져 있는 법이다. 작가의 풍부한 체험을 통한 상상력은 독자로 하여금 '인생이란 생각했던 것보다는 풍요로운 거로구나'라고 기대를 걸 수 있게끔 해야 하고 가능하면 자유로이 그리고 보다 넓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보편적 타당성을 문학 교육에 적용하는 뜻이다.

* 진정으로 위대한 문화는 “그 특수성 못지않게 보편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다니엘 키스터신부, 1994. 10. 3일자 조선일보 참조)

3. 개선 방안 모색

1) 국민학교 학생들의 외국 문학 접촉은 TV, 비디오, 컴퓨터, 만화, 동화책, 만화영화 등등의 대중매체에 의해 이미 필요 이상으로 많은 호기심을 자극받고 있는 실정이라, 외국 문학이 아닌 우리 문학의 올바른 이해와 초석을 다지는 의미에서는 일견 국민학교에서의 외국 문학 소개는 불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걸음 나아가 자라나는 새싹들의 깨끗한 심성보존과 풍부한

상상력의 개발을 미래지향적으로 전망해 볼 때, 5, 6 학년에서의 외국문학 입문(예를 들어 월터 디즈니의 세계라든지 아름다운 ‘메르헨’(Märchen) 소개)은 상당히 유익할 것이다.

아울러 어린이들로 하여금 별별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즐비한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詩(노래(Lied)의 가사를 포함한)를 읽게 한다든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독일에서) 사랑받는 여류 아동문학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Astrid Lindgren)의 주옥같은 아동 문학을 선별하여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하여 소개하면 한창 다른 세계에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많은 꿈을 안겨다 줄 것이라 확신한다.

2) 중·고등학교용 외국 문학

중학 과정 3 년 전체, 그리고 고등학교 3 년 과정 전체를 위한 2 권의 외국 문학 소개를 권하고 싶다. 중학교에서는 중학교의 연령과 심리에 적합한 작품을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똑같은 동화 소개라도 오늘의 사회적 실태를 감안할 때, 성교육을 어느 정도 내포하는 과감한 변화를 주지 않고는 여전히 시대와 동떨어진 공자디, 맹자디의 구태의연을 면치 못할 것이다(예를 들면, 잠자는 숲속의 공주는 한창 호기심이 강하게 작용할 사춘기 시절의 학생들에게는 동화 차원이 아닌 성적 그리고 심리적 차원에서의 해설이 가능하다).

(2.1) 이처럼 같은 내용을 해설 및 해석의 차원을 높이고 낮춤으로써 방법론적 견해를 달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2.2) 또 하나는 아예 내용 자체를 연령과 심리에 걸맞게 규정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엔 대개 작품 자체가 주인공의 연령이나 환경에 의해 규정된다(예를 들어, 앞에서 언급한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에서>는 어려운 시험을 목전에 둔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고등학생용으로 적절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고3 정도의 연령 수준에서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나 <심판>같은 작품을 미리 읽히는 것도 무척 의미있는 일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교육 방법의 개선을 위해서는 독일에서처럼 우선 '흑백 교과서 철폐' 등등 교과서 집필과 선정에서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안된다.

독일은 주마다 조금씩 특징이 다르지만 대체로 출판사에 상주하는 전문요원이 각급 학교 및 교수들로 구성된 전문가들의 협동(Zusammenarbeit)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집필, 작성하여 문교부(Kulturministerium)의 인가를 -우리처럼 투기에 가까운 까다로운 경합과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받는 절차를 거쳐 각 학교에서 자유로이 채택을 결정함으로써 모든 것이 비교적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김나지움(우리의 중·고) 상급반에서는 대학과 유사하게 특정 교재가 없이 다양한 여러 교재를 임의로 선정하여 세미나식 수업을 하기 때문에 교과서의 의미가 우리와는 무척 다르다.

우리처럼 산간 벽지, 오지와 해변에서부터 서울 강남에 이르기까지, 과학교와 외국어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인 지식과 환경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교재를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정말로 과감한 모든 문학 교육의 개혁을 요구한다.

외국 문학의 작품 선정에 있어서도 유의해야 할 점은 여태까지는 이 세상 모든 것이 거의 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선진국에서 평가하는 작품 선정 기준을 그대로 표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세계사의 흐름(예를 들어 백인의 아메리카 인디언 정복, 아프리카 흑인들의 노예화, 유대인 학살, KKK, 신나치 등등)이 증명하듯 '권력 의지'(Wille zur Macht)와 '힘의 원리'에 의한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이제는 이런 점들을 모두 탈피해서 어느 나라 문학이든 훌륭한 문학적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되면 과감히 소개해야 할 것이다. <참고. 한기상 : 독일 문학개론, 학연사, 1993, S. 87 평가 부분>

올바른 외국문학 소개가 제대로 시행될 때 국문학과와 상호보완적 교호작용(Wechselwirkung)은 전반적인 문학 교육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끝으로 구체적 작품 선정과 객관적 해설 작업은 다른 프로젝트로 넘어 가야 하리라고 사료된다.